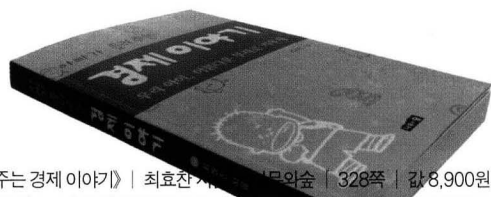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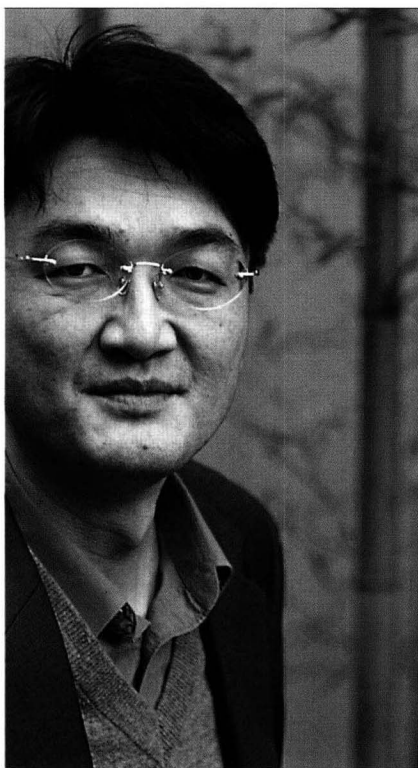


영어·수학 공부 못지않게 경제 공부가 중요합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 최효찬 지음 | 민음사 | 328쪽 | 값 8,900원



이 책의 부제는 '우리 아이, 아름다운 부자로 키우자'이다. 저자가 이러한 부제를 단 것은 아이들이 부자가 되어 과연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너희들은 공부만 잘해라, 그래서 용돈을 두둑하게 주고 과외 많이 시키고 그러면 다 되는 것인 줄 아는 부모들이 많죠. 그렇게 해서 애가 성공할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해도 오래가지 않을 거 같거든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제교육을 해주어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이들보다 학부모가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신용이다. 신문기자로 일하다 보니 십대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비판

적으로 쓰고 범죄자가 되는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된다. 10대 때 올바른 경제교육을 받지 못해 일어난 실수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아는 까닭에 그는 신용이 왜 중요한지, 왜 신용이 곧 돈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올바른 시민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또 신용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고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기네들 매출 올리려고 무분별하게 발급해 주고 있고, 그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 현실에 대한 경종의 의미도 있고, 어릴 때 왜 신용이 중요하고 신용이 있으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고 싶었지요.”

따라서 그는 경제교육이 영어나 수학 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제대로 알아도 경제적인 마인드를 획득하는 것이고, 그렇게 경제교육을 받은 십대들은 나름대로 어릴 때의 경제공부를 통해 앞으로의 자기 목표를 세워 사회가 될 원하는지 일단 어떤 수요가 일어날 것인지 알고 사회진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버님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밤 아쓰기 교육을 시키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문득문득 따뜻하게 되살아날 때가 있어요. 학교에 한글을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받아쓰기를 시키신 건데 그 기억이 따스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공부가 전부는 아니더라도요. 오히려 어릴 때 부모 자식 간의 경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경험들로 훗날 아이들에게 기억될 수 있고, 사회인으로 자리잡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그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 말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대화를 하며 쌓아나가는 올바른 경제마인드야말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훌륭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겨레**

취재 양선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